

'체류형 관광객 잡는다'

익산 방문의 해 파격 인센티브... 단체관광객·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 등 유치

익산시가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핵심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으로 관광객 물이에 나선다.

특히 체류형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500만 관광 시대를 견인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과 세대별 여행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익산만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10대들의 '수학여행', 20대 감성 인스타 연인여행, 아이들과 함께하는 30대들의 여행 '자녀교육 古都체험', 40대 '쇼핑과 하루여행', 미

식관광과 생태여행이 주를 이루는 50대들의 힐링여행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여행 코스를 개발했다.

또한 당일, 체류형 또는 소규모 그룹, 가족 연인들을 위한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각 관광상품은 미륵사와 백제왕궁 박물관 등 역사자원을 포함해 아가페 정원, 교도소세트장 용안생태습지공원 등 지역의 핫플레이스와 연계해 운영된다. 대표축제인 서동축제와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문화제 아원도 함께 접목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맞춤형 관광상품인 '익산

형 투어 활성화와 관광 붐 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우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이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단, MICE 행사를 유치한 여행업체 등이며 지역 관광자나 음식점,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여행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평균연령 71세 초등학생들의 졸업을 응원하며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 배움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평균71세 익산행복학교 졸업

익산시, 초등학력인정과정 졸업생 17명 배출... 늦깎이 학습 결실

익산시가 평균연령 71세 초등학생들의 졸업을 응원하며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 배움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3일 익산시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익산행복학교 제3회 초등과정 졸업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초등학력인정과정 남산반 6명, 금마반 11명의 졸업생과 교사,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학습활동이 담긴 영상감상과 졸업장 수여가 이뤄졌으며 2명의 문해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졸업생 중 초등과정의 최고령 학습자는 84세이며 향후 중학교 예비반에 지원하게 되는 등 고령의 나이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으로 학습의 성과를 이뤘다.

졸업장을 받은 학습자는 "항상 마음 한 편에 배움의 한을 간직하고 싶었는데, 뜻밖에 졸업이라는 이런 행운을 만날 줄 몰랐다"며 "기회를 열어주신 익산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번에 졸업생을 배출한 '익산행복학교'는 나이 제한 없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배움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을 시작해 현재 29개 읍면동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유류시설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중학학력인정을 포함해 디지털 문해교육, 왕초보영어교육 등을 통해 문해력을 높여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꽃다운 익산시민 한 분 한 분이 문해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에 올해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성명서 만장일치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3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5곳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각시설의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2022년 8월 31일 적정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인산업이 2020년 12월 28일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고온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군산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청은 군산시민의 고충과 우려를 묵살하고 적정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 북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 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지난 12월 환경부는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라돈침대를 소각하

겠다고 하여 온 시민의 공분을 사더니 또다시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전형적 불통사례로 26만 군산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의회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무책임한 적정통보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민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결정을 즉각 철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 주변환경피해, 시민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 집합소가 아니다.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전북지방환경청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가스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

군산시는 23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와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3월 3일까지 추가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란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속배관 사업은 총 50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누구나 신

청이 가능하며, 자부담 5만원이 발생한다.

참고로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부터는 고무호스를 사용할 수 없고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 보급 사업'은 가스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자가 설정한 시

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 이 사업은 대상 가구가 제한적이다.

먼저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여야 하고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소외계층으로 제한된다. 시는 총 600가구에 대해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선착순 신청인 만큼 제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월 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 '우수' 선정

익산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3곳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우수시설로 인정받은 3개 장애인 복지 시설은 용인원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과 '훈훈한 집', 팔봉동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피드림이다.

또한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총17개 중 13곳이 최고수준인 A등급 장애인

과 상생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규모 평가로 전국 1,000여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 운영 전반의 6가지 분야에 대해 A(최고)부터 F(최하)등급까지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우수시설로 선정된 3곳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B등급을 평가받은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농기센터, 영농전 토양검정 무료 서비스

익산시가 농경지 토양 양분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 확인하는 '토양검정 무상 서비스'로 풍년 영농 시작을 돕는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작지별 적정 비료 사용량을 추천하는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양검정은 토양의 건강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작물별 적정 시비량과 토양개량 방법 등을 기술 지도함으로써 영농비 절감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영농서비스다.

센터는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통해 농가들에게 토양시료를 연중 무료로 분석해 작물 및 경작지별 적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토양종합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훈련기관 모집

군산시는 청·장년층의 취업문제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2023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을 실시할 훈련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청·장년 실업자들을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우수기술인력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훈련기관의 자격조건은 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 기관이며, 모집 훈련과정은 5개 과정 내외로 용접, 건설기계, 전기설비, 전산세무회계 등 인력수요가 많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각 기관은 군산 거주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과정별 20명 정도의 교육생을 모집·선발해 4~6개월 동안 훈련을 실시하며, 우선 채용 협약을 맺은 관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업 연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